

##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및 실적 평가

임윤출

북한 전문 자유 기고가

**외** 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타결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직접 투자 유치 노력은 일부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완만하나 지속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과거 경제적 원조나 차관에 의한 경제 건설 경험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에 의존한 경제 건설을 이룩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환경 정비 노력에 힘입어 정책 방향의 투명성 제고, 각종 투자 유치 법규 제정 등 제도의 정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시, 투자 분야 및 규모, 투자 방법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외국 기업의 관심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은 사실 '은밀' 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장의 투자 이행 단계는 아니더라도 북한 시장에 대한 '감' 을

익히기 위해 우선은 빈번한 방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표면적으로 북한이 투자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기업은 현재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잠재력' 에 대해 평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의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는 비단 김정일의 권력 승계, 핵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모든 현상들, 이를테면 홍수 피해로 인한 곡물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개발 성과,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 등도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 년 사이에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북미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북미 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북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성과도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는 9월 13일부터 나진·선봉에서 개최되는 「나진·선봉 투자 촉진 포럼」도 사실 '국제적' 인 사건이다. UNDP, UNIDO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 기업에 의한 대북한 경제 제재 추가 완화 건의도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행사는 그동안의 개발 및 외자 유치 실적을 외국 기업에게 유감없이 보여줄 것이다. 마침 북미간의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 2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본고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994년 10월 이후 지난 1~2년간 북한의 외국인 직접 투자 계획의 변화 및 실적을 나진·선봉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의 변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규 정비 등 제도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자 대상, 규모 및 방법의 제시이다.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UNIDO와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투자 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해왔다. 중장기적인 개발 단계가 당초의 3단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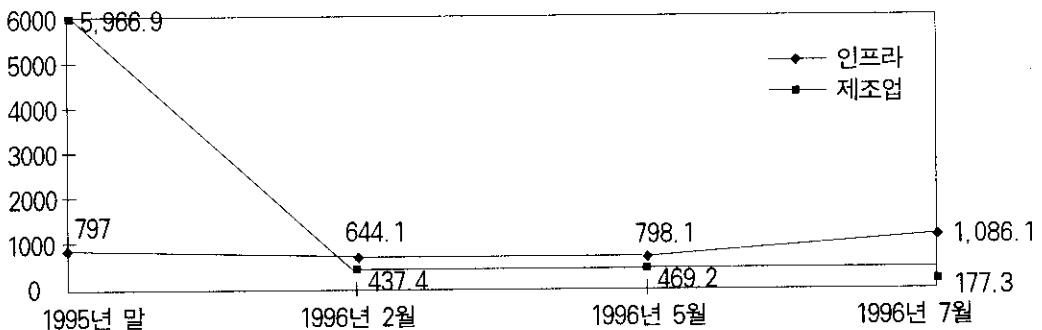
서 2단계로 축소 조정되면서, 특히 최근 1~2년 동안에 발표된 투자 규모 및 내용은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이러한 투자 규모 및 우선 순위의 변화는 북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외국 기업들의 빈번한 방북을 통한 투자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및 두만강 개발 차원의 국제 기구(UNIDO 등)에 의한 개발 계획 조정 건의를 북한이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대의 변적 확대 조치로 기본 개발 계획이 수정되고, 인프라 분야에 대한 내자 동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합영 또는 합작 방식으로 계약 체결이 일부 성공함에 따라, 지대 건설과 외자 유치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외자 유치 계획은 일부 수정 내자 구체화·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공업(제조업) 분야의 외자 유치 규모가 대규모 축소 조정되었고 인프라 분야는 약간씩 투자 규모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1〉 부문별 외자 유치 규모 변화

(단위: 백만 달러)



본 고에서는 가장 최근에 입수된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발표 「투자 유치 우선 대상 리스트」를 중심으로 변화된 개발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리스트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유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의 86%를 차지, 금액으로는 10억 8,600만 달러의 투자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 가운데에서도 공항과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항만은 나진항 정비가 대부분이고 공항은 선봉공항 건설과 어랑공항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프라 부문에는 기존의 합영·합작 방식 외에 BOT 방식이 도입되어 주목되고 있다. BOT방식은 Build-Operate-Transfer 혹은 Build-Own-Transfer로 표현되는데, 민자 유치 사회 건설 사업의 하나이다.

보통 여러 민간 기업으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으로서 프로젝트 전담 회사(Project Company)가 약정 기간 동안 특정 사회간접자본을 시공·운영한 후,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정부 혹은 발주 기간에 이전하는 프로젝트 개발 기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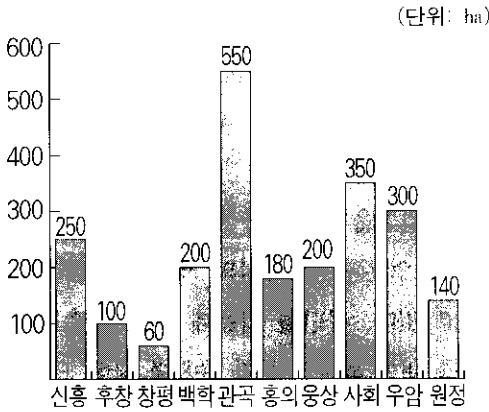
제조업은 공단 중심의 개발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단들 가운데 특히 신흥공단 정비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공식 요청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계획 상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공업 지구로 알려진 청계지구가 모델공업단지로 선정되어 우선 개발·정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1996년 7월 東京에서 입수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발표 「투자 유치 우선 대상 리스트」에 이들 2개 공단 정비가 처음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투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표 1〉 공업 단지 개요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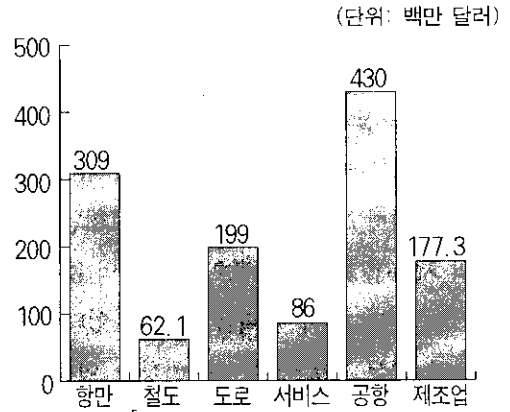
번호	명칭	부지 면적	대상 업종
1	신흥공업단지	250	경공업, 기계 공업 등
2	후창공업단지	100	식료품, 건재 공업, 보세 구역
3	창평공업단지	60	선박 수리, 조선
4	백학공업단지	200	전자·자동화 공업
5	관곡공업단지	550	원유 정제, 화학·섬유 공업
6	홍의공업단지	180	자동차, 기계 공업
7	웅상공업단지	200	목재 가공, 선박 수리
8	사회공업단지	350	자동차 조립·부품, 경공업
9	우암공업단지	300	서비스 부문 경공업
10	원정공업단지	140	각종 경공업

〈그림 2〉 공단별 규모 비교



주: 청계지구 공업단지(모델 공단) 15만㎡ 나진시 청계동에 있음.

〈그림 3〉 분야별 투자 유치 비중(금액 기준)



주: 서비스 부문은 개발(투자)촉진센터 건설, 비파호텔 건설을 가르킴.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합영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프로젝트건별 투자 형태를 보면 합영 47 건, 단독 35 건, 합작 12 건 순으로 합영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오는 9월에 나진·선봉에서 개최되는 「나진·선봉지대 국제투자비즈니스포럼」에서 제시될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의 부문별 비중은 <그림 5>와 같다. 이는 UNIDO가 사전에 발

〈표 2〉 투자 유치 우선 대상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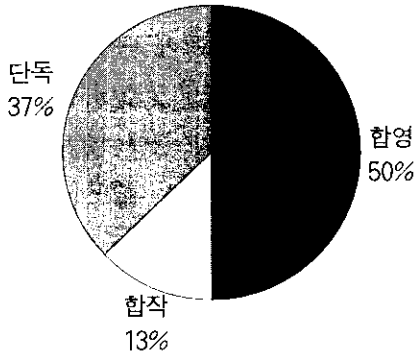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대상	건수	투자액	비고
인프라 정비	13	1,086.1	
항만	5	309	
철도	2	62.1	
도로	2	199	
서비스 시설	2	86	
공항	2	430	
관광단지 정비	1	-	비파관광지구 정비(40만 m <sup>2</sup> ) * 추가
공업단지 정비	2	-	신흥, 청계공단 정비 * 추가
상업센터	1	-	* 추가
제조업	33	177.3	
총계(액)	50	1,263.4	

주: 1)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6년 7월 발표.

2) 상기 항목 이외에 투자자가 자기 선택에 의해 선정하여 금년 중에 계약을 체결, 투자를 하는 임의 투자 대상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

〈그림 4〉 투자 형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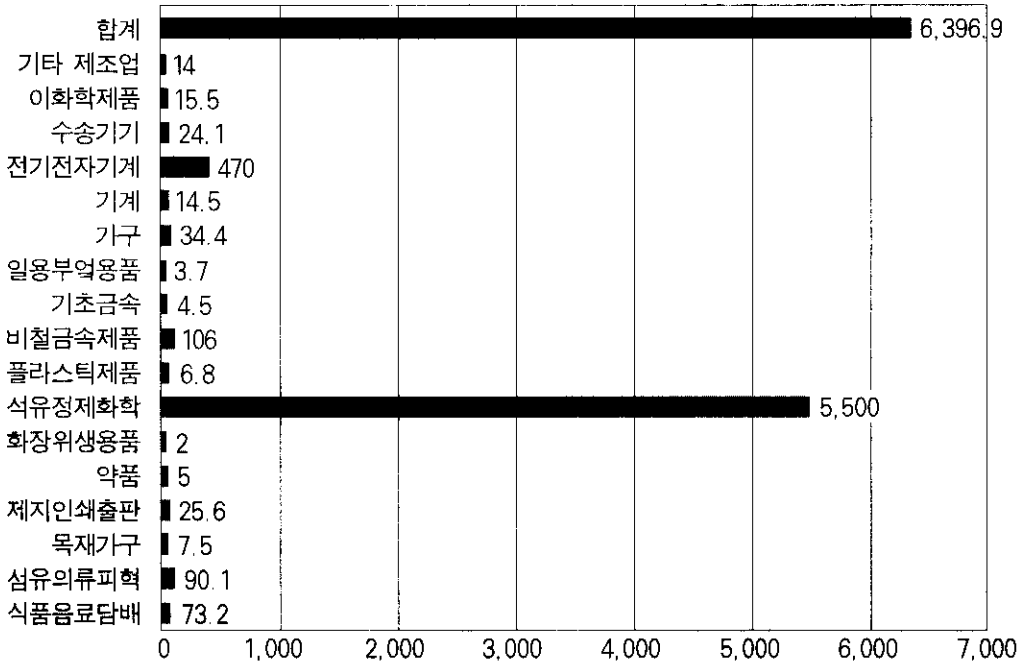
표한 것으로서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여기에는 제조업만 포함되어 있다. 투자 대상은 101 건

으로 총투자액은 약 64억 달러이다. 이처럼 공업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은 석유 정제 및 석유화학 공장 투자 규모가 55억 달러로 신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나프타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석유화학 공장은 「국가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전기·전자·기계 부문 투자의 비중이 24 건, 4억 7,000만 달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선진 과학 기술 도입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공업 부문별 투자 유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신규 공장 건설뿐 아니라 기존 공장 근대화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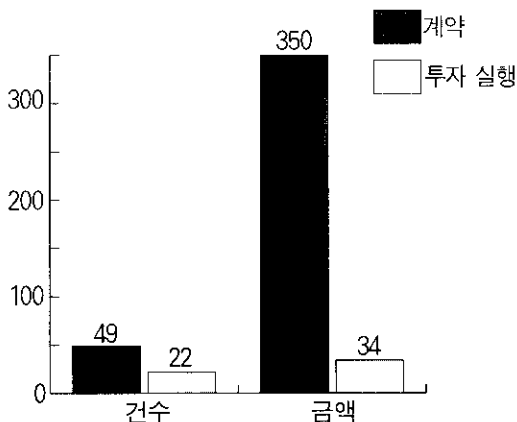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 유치 동향 평가

가장 최근에 확인된 외국인 직접 투자 실적은 49 개 대상에 3억 5,000만 달러가 계약되었고 이 가운데 60%가 1995년에, 30%가 1996년 1~5월 사이에 맺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49 개 계약건 가운데 22 건이 계약 이행 단계에 들어가 3,2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는 것이다(7월 15일, 동경 비즈니스추진세미나, 김수용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강좌장 발표 자료).

이러한 발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세부 항목별로 직접 투자 실적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투자 계약 및 실행 규모

(단위: 건수, 백만 달러)



### 투자 계약 건수

투자 계약 건수는 49 개 대상, 3억 5,000만 달러로서 1996년 7월 東京에서 공개한 투자 우선 리스트 총투자 금액 12억 6,300만 달러의 27.7%에 해당한다. 계약 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투자 실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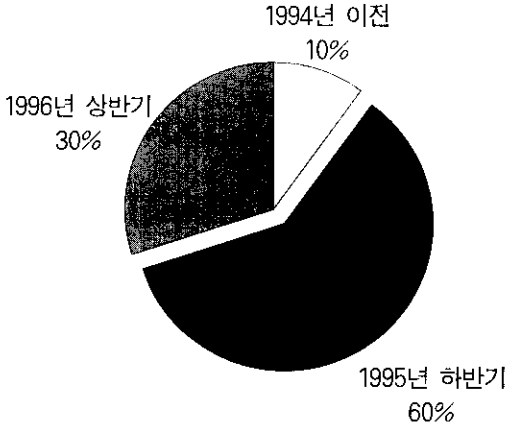
투자 실행 규모는 22 개 대상에 3,400만 달러로서 투자 실행률은 9.7%에 지나지 않았다. 계약 실적에 비해 이행 실적이 높지 못한 중요한 요인은 계약의 90%가 1995년 하반기부터 1996년 상반기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자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 것으로 김수용 교수는 자체 분석하고 있다.

### 투자 계약 시기

투자 계약 시기는 1995년 60%, 1996년 1~5월 30%, 1994년 이전 10%로서 북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의 실질적인 성과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미 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기간별 투자 비중

## 투자 지역



투자 지역은 나진·선봉에 집중되고 있으나 일부 금융 기관(ING BANK) 등은 평양과 나진 양쪽에 동시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평양에는 주로 외국 기업의 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혹은 Liason Office) 형태가 많이 설립되고 있다. 현재 약 20 개 외국 기업이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투자 대상

## 투자 국가 및 기업 규모

투자 대상은 49 건으로서 투자 대상 가운데 가공업(제조업) 8 건, 나머지는 인프라 부문 및 상업, 운수, 봉사, 금융 부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이는 개발 초기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지대에 아직 하부 구조의 정비 상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반영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이 부문에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한 결과로 김수용 교수는 자체 분석하고 있다.

대규모 외국 기업 투자에 비하여 중소 규모의 교포 투자 비중이 높다. 49 개 투자 대상 가운데 50% 이상이 중국, 일본, 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투자이다. 중국의 초기 경제특구에의 최대 투자자가 홍콩, 대만 등지의 화교들이었음을 상가해볼 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 교수는 또한 국가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 년간(1993~95년) 인프라 정비에 약 1억 5,000만 북한 원(약 6,000만~7,000만 달러)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홍콩

홍콩의 영국계 페레그린은행은 대성은행과 합병으로 '페레그린대성개발은행'을 설립(본점 평양, 지점 나진)하였다. 초기 자본금은 1,500만 달러, 주로 북한의 대외 결제 및 외자 유치 관련 금융 서비스 업무를 행하고 있다.

페레그린사는 홍콩의 국제적 금융 그룹의 하나로서 1988년에 자본금 3,800만 달러로 창립, 홍콩 최대 재벌인 리카싱그룹 등 18 개의 법인이 출자해 놓고 있다. 홍콩을 거점으로 영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증권·투자 중개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는 일천 하나 아시아 지역의 금융 시장에서 급성장을 보여 중국, 한국, 미얀마 등에서도 합작 기업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신동아주식회사(식품 공업, 공항 건설)는 단독 투자로 동명동에 주류, 청량 음료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 현지 양질의 용수를 이용하여 주류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1단계로서 200만 달러를 투자, 4만 8,000 리터/일 능력의 주류 공장을 건설한다. 또한 합영으로 선봉국제공항(동부 국경 지역, 부포리)과 나진헬리포트 건설, 나진호텔 건설 등에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 ○ 중국

중국 연변용흥무역집단공사(서비스업)가 나진·선봉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나진역 앞, 역전동에 10층 건물을 건설, 택시업과 음식점, 상점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건물의 일부는 사무소, 주택용으로 임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변항운공사는 한국특수선과 합작 투자해 설립한 동룡해운을 통해 부산-나진 정기 직

항로 개통(1995. 11. 10), 컨테이너 취급 설비 현대화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 러시아

러시아는 나진항에 2 대의 알루미늄 하역 설비 및 벌크 비료 선적 터미널(일본과 공동) 건설에 투자하였다(1996. 2, 니이가타, 두만강개발사무국 주최 두만강개발지역투자환경 설명회 발표 자료).

#### ○ 미국

미국의 對북한 투자는 역시 추가 경제 제재 완화가 최대 관건이다. 1995년 1월 對북한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발표되어 기업인의 방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 타당성 조사를 마친 기업은 많으나 아직 투자 실행 단계에 있는 기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보잉사, 크라이슬러(Crysler), MCL, 스탠턴그룹(Stanton Group) 등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스탠턴그룹은 1994년 11월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정우 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선설비회사와의 합영회사(조선설비·스탠턴개발회사)를 설립, 선봉중유발전소(20만 kW 능력)를 가동시켜 그 능력을 2



배로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나진·선봉지대 내의 전력 수요 보장, 선봉원유가공공장(연간 200만 톤 능력)을 확장, 원유 가공품의 생산, 나진·선봉지대예의 투자 유치에 협력하는 것을 합의했다.

1995년 10월 東京을 방문한 김수용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스탠턴그룹과의 합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 ○ 영국·네덜란드

영국·네덜란드 합작회사인 로얄더치셀 산하 셸퍼시픽(북경지사장 스티븐 콕스)사는 선봉항에 가까운 용수리에 10 ha의 토지를 50년간 임차, 우선 200만 달러를 투자 10만 톤 규모의 원유 저장·공급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향후 1.5 ha의 피치(중유 정제 후의 잔유물, 절연재, 도로 포장 등에 이용) 보관장, 5만 톤 규모의 중유 하역용 부두도 건설할 예정이다. 시베리아산 원유를 가솔린 등으로 가공해서 각국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네덜란드의 ING BANK는 조선국영손해보험회사와 합영으로 'ING NORTH-EAST ASIA' 은행을 설립했다. 자본금은 1,500만 달러, 북한 당국은 은행 분야에의 최소 투자 금액을 1,500만 달러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분 ING BANK 70%, 조선국제보험회사 30%로서 지점(사무소)은 나진, 평양 2 개소에 설치하였다. 출자가 전액 경화로 지불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점장(General Manager)은 ING, 부지점장(Deputy General Manager)은 조선국제보험공사측에서 맡고 있다.

당분간은 주로 북한과 외국과의 무역에 관련된 송금 등의 무역 금융 및 북한의 개발 프로젝트에의 용자 등의 업무를 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진출 기업에의 정보 제공 및 용자 등에도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ING은행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으로서 최근 아시아 지역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 ○ 태국

태국의 북슬리 통신 업체는 나진·선봉내 통신망 근대화 사업에 진출해 있다. 합작으로 나진국제통신센터에 투자하여, 국제 위성 통신, 전화, 휴대 전화, 케이블 TV 등의 통신 서비스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1단계로 3,500만 달러를 투입, 1만 5,000 회선, 2단계로 1억 달러를 투자, 10만 회선, 3단계에서는 5억 달러를 투자, 40만 회선을 정비할 예정이다.

〈표 3〉 조조 합영 기업의 가동 현황(1995년 7월 현재)

업종	가동수	합영	합작	임가공
경공업 부문	38	16	11	11
중화학, 전기·전자	24	12	10	2
농수산 부문	19	5	14	0
서비스 부문	20	15	5	0
합계	101	48	40	13

○ 대만

대만과 일본은 현재 대세를 관망 중이며, 투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투자 사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다만, 지난 1~2년 사이 양국간의 교류 움직임으로 심작전대 중국의 견제 위상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나, 중국-대만-북한 3자간의 악화 관계 변화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협력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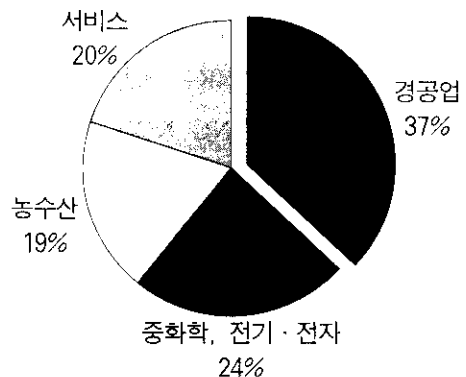
북·대만간 경제 교류는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 김응렬 대만 방문(1995년 3월), 대만 국영부역진흥기관 CETRA(대외부역발전협회) 북한시장조사단 파견(1995년 5월), 대만 경제 부처 인사 방북 추진(1995년 11월, 중국측 견제로 방북 무산),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서기장 김정길 무역대표단 대만 방문(1996년 3월) 등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다.

○ 일본

일본과는 여전히 조조 합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인사들의 일본 經團聯 접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일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으나, 투자 실행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 일본 기업의 특성상 후발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조조 합영 기업의 1995년 7월 현재 가동 현황은 <표 3>과 같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그림 8〉 조조 합영 업종별 비중



는 생산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분적인 가동만 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기타

기타 영국, 독일 지멘스(GIMENS)社, 프랑스 알카텔, 스웨덴 에릭슨社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실사를 끝내고 투자를 실행하고 있거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의 목적은 선진 기술 도입, 국제수지 균형의 도모, 지역 협력 구도의 정착을 통한 항구적인 경제 발전 도모, 개발 이익의 타지역 분배를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 무역제일주의 등 대외 경제 협력의 실현 등이다.

나진·선봉특구가 이러한 목적 실현의 성공을 결정짓는 키를 쥐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까지의 외자 유치 실적으로 보아 성과는 목표의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일부 투자 유치 성공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자 유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과 1~2 년만에 이룩한 성과(계약액 3억 5,000만 달러)로서는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몇개월 전 즉, 지난 2월 니이가타 투자설명회에서조차 쉽게 언급하지 못하였던 투자보장협정에 대해서도 토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은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의지를 읽게 해주고 있다. 김수용 교수는 지난 7월 15일 동경투자유치설명회에서 스위스,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협정을 맺기 위한 협의를 이미 시작하였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최대 이슈는 투자 보장 협정이 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나진·선봉 개발 문제가 UNDP, UNIDO 등 국제 기구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국제화' 되고 있고 북미간의 관계 개선도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